모호한 공개… 불안 못 막는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정보 공개 범위 제각각… 실효성 우려
우편 통한 상세한 정보 고지 대상도 한정 '불만'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이 공개된 전과자에 의한 유사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로 돌아온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예방 대책은 이런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게 신상 정보 공개 제도로, 성범죄 재발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거주지, 키·몸무게, 범죄 사실 등의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런 정보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와 이들을 보호하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고지된다. 우편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 받는 가정 등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나온 것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명과 주소 뿐만 아니라 동과 호수까지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제주지역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45명이다. 본보가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결과 공개된 정보 범위는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 사실을 비롯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까지 공개된 반면, B씨는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만 공개됐다. B씨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내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거주하는 지는 모르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는 원래 읍·면·동 등 행정구역만 공개됐다가 법이 바뀌어 2013년부터 도로명 주소까지로 확대됐다"면서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됐느냐에 따라 거주지 정보 공개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의 살고 있는 건물의 동과 호수까지 알 수 있는 우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 등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아동을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범죄자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여성 1인 단독가구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고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김모(26·여)씨는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알림e 앱에선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같은 건물인지 옆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 (오히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몰랐을 때보다) 더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0일 오전 10시 59분쯤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의 한 양어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한경면 양어장서 화재… 인명 피해 없어

기계 설비서 발화 추정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양어장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꺼졌다.

10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소재 양어장 1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양어장 기계실 66㎡ 등을 태운 뒤 11시 21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1층 산소발생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연예인 분양 사기 허위보도 언론인 벌금형

연예인이 분양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한 현직 언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경제신문사 기자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박 판사는 A씨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29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예인 먹튀 제주타운하우스' 제목의 기사를 소속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에는 '타운하우스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건설 업체가 연예인을 앞세워 분양 사기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었지만 결국 정상 준공돼 사기분양이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먹튀'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연예인은 실명까지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전 여자친구 감금·성폭행 혐의 30대 구속… 이별 통보에 범행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때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일 사귀던 여자친구 A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가 사흘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약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망을 피해 도주하던 강씨를 도주 사흘 만인 지난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긴급체포했다. 강다혜기자

함몰된 도요지 19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도요지(제주도지정기념물 제58-4호)의 지붕 부분이 함몰된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초·중 일대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횡단보도·전용 횡단도 설치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대에 자전거 전용 횡단도 설치 등 자전거 이용환경이 개선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8000만원을 확보, 총 3억6000만원을 투입해 한라초·중학교 주변에 고원식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 등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처럼 횡단보도를 도로표면보다 높게 해 자동차 진입속도를 저감시켜주는 안전시설이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횡단도다.

한라초·중학교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밀집하고, 학교가 위치하면서 등·하교시 자전거 이용이 많아 사고위험도 높은 지역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이나 자전거에 탑승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료 지급 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이나 제주시 도시재생과(064-728-3553)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도민 10명 중 9명꼴 일회용기 사용 제한 찬성

제주도민 10명 중 9명꼴로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2020 1회용 플라스틱컵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30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8%가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가장 먼저 퇴출해야할 1회용 용기의 재질을 묻는 질문에서 플라스틱이 83.3%로 가장 많았다. 퇴출이 시급한 제품의 형태는 컵(42.8%)과 빨대(22.7%) 등이 꼽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월 국회에서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그랜드 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 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